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19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 농업 여건 급변... 도농기원 “발전 계획 세운다” -6면	미래농업육성과	뉴제주일보
○	도농기원, 농업과학 기술발전 계획 수립-10면	미래농업육성과	제주매일
○	‘바이오차’ 실용 연구 착수-3면	친환경연구과	제민일보
○	“안전사고 유의 ‘각별’ ” -2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조생양파 첫 출하에도 농민 걱정 가득-1면	-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9일)

○ 제주 농업 여건 급변… 도농기원 “발전계획 세운다” -6면

제주 농업 여건 급변…도농기원 “발전계획 세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제주 농업과학기술 발전 계획(2024~2027)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은 기후변화, 농업·농촌 소멸 위기 등 급격한 여건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농업을 둘러

싼 대내·외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세워진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도정 핵심정책 반영 ▲첨단 융복합 농업과 학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제주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유도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발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과장은 “급변하는 농업 여건을 반영해 보다 실용적인 기술개발·보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9.

뉴제주일보 6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매일: 2024년 3월 19일)

○ 도농기원, 농업과학 기술발전 계획 수립-10면

도농기원, 농업과학 기술발전 계획 수립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기후변화, 농업·농촌 소멸 위기 등 급격한 여건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에 적극 대응, 제주 농업과학기술 발전계획(2024~2027)을 수립한다.

발전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한 제주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기술개발·보급 계획(2018~2027)의 2차 개정으로 △국·도정 핵심정책 반영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제주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유도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종자 주권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3.19.

제주매일 10

(제민일보: 2024년 3월 19일)

○ ‘바이오차’ 실용 연구 착수-3면

‘바이오차’ 실용 연구 착수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차’ 실용화 연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바이오차 1t을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약 1.3t을 토양에 저장할 수 있다. 이를 제주도 내 농경지에 적용하면 약 7만2000t의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것이다. 도농기원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삼나무 톱밥 등 농림부산물 자원을 활용, 바이오차 생산 조건을 규명하고 제주 화산회토에 3.19. 탄소저장 효과를 검토한다. 제민일보 3

(제민일보: 2024년 3월 19일)

○ “안전사고 유의 ‘각별’ ” -2면

“안전사고 유의 ‘각별’ ”

○…최근 감귤원 간벌·전정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파쇄기 등 농기계 사용 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사망 2건을 포함해 70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3~4월 발생한 것으로 집계.

일각에선 “사고 대부분이 장갑, 옷소매 등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발생한 만큼 작업에 나서기 전에 위험요인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 3.19. 제민일보 2

(제민일보: 2024년 3월 19일)

○ 조생양파 첫 출하에도 농민 걱정 가득-1면

조생양파 첫 출하에도 농민 걱정 가득

안정적 가격·출하 중요

18일 대정읍서 수확 한창
재배면적 늘고 생산량 비슷
1~2월 일조량 감소 등 영향
인건비 상승·약값 농민 부담

“인건비 상승에 기후 위기까지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가격 안정화
가 중요합니다”

18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밭에
는 전국 첫 출하를 앞둔 조생양파를
수확하는 농민들이 분주히 움직이
고 있었다.

이들은 밭에서 뽑은 양파 중 비상
품을 골라내고, 깨끗한 양파들을 15
kg들이 망에 담았다.

양파들 가운데는 알이 두 개가 불
은 형태의 ‘쌍구(쌍알)’와 크기가
작은 자잘한 양파들도 눈에 띄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올해산 제주
조생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1
6.2% 증가한 647ha다. 생산량은 지
난해(3만9250t)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3.19다.

제민일보 1이 늘어난 재배면
적에 미치지 못했고, 평년보다 약값



조생양파가 전국 첫 출하를 앞둔 가운데 18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밭에서 한 농민이 양파를 망에 담고 있다. 고기욱 기자

과 인건비는 더 많이 들어가면서 농
민들의 가격 걱정은 커지고 있다.

농민 김옥자씨(67)는 “올해는 유
난히 쌍알이 많이 나와서 비상품이
늘었다”며 “1~2월 일조량이 적어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잦은 비 때
문에 약은 더 자주 쳐서 약값과 인
건비가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이 첫 수확이라 올해
가격은 아직 모르지만 가격이 손익
분기점은 넘어야 한다”며 “가격이
좋을 때는 정부가 양파를 수입하면
서 이래저래 농민들만 피눈물을 흘

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생양파 농가 손익분기점을 맞
추기 위한 가격은 1kg당 1200원이
다. 조생양파가 출하되기 전인 지난
양파 가격은 kg당 1월 1128원, 2월
1263원 수준이었다.

이날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서
귀포시 대정읍 양파 수확 현장을 방
문해 점검에 나섰다.

제주지역은 8월 하순에 조생양파
를 파종해 전국 처음으로 3월에 수
확한다. 제주도 조생양파는 전국 조
생양파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한

다.

송영석 대정농협유통센터장은
“생산량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감
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전망은
나쁘지 않다”며 “이번주 출하가 분
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최대한 가격
을 높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윤재춘 농협 제주본부장은 “전국
에서 처음 출하하는 제주도산 조생양
파는 우리나라 양파 가격 형성을 결
정하기 때문에 안정적 출하가 중요
하다”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